



통영, 예술이 부유하는 푸른 바다와 항구

통영은 푸르다. 파란 하늘 아래 청록색 바다에서는 파랗게 색칠한 고깃배들이 희푸른 물결로 유연한 곡선을긔고, 하늘빛을 담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새파란 지붕을 얹은 하얀 집들이 웅기종기 들어서 있다. 시리도록 푸르고 아름다운 이곳 풍광은 못 예술가의 감성을 자극했고 시에, 그림에, 음악에 담겨 일대의 역작이 됐다.

글 임동근 기자·사진 김주형 기자



누군가가 그랬다. '통영에서 예술가를 키워낸 8할은 바다였다'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코발트빛 하늘과 강렬한 태양이 피카소, 달리, 미로를 키워냈듯이, 통영에서는 아마도 시리도록 푸른 빛깔 때문이었으리라. 또 푸른 하늘과 한려수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고깃배 드나드는 활기찬 항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부지런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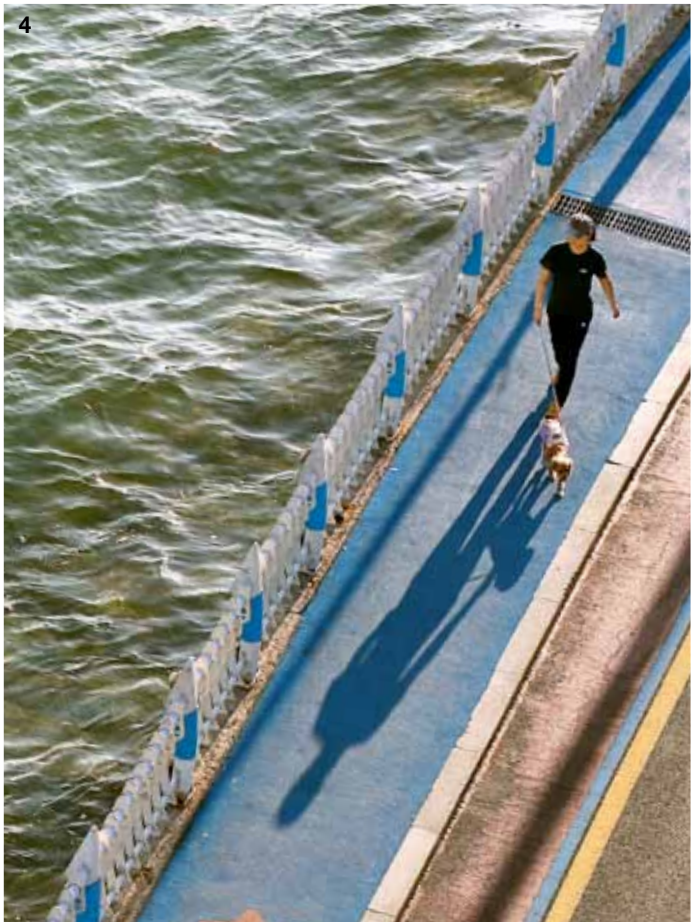
예술이 부유하는 이곳에서 전혁림 화백은 평생 동안 그 푸른 비경을 화폭에 담았고, 시인 백석은 시를 세 편이나 남겼다. 또 청마 유치환은 에메랄드빛 하늘이 흰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가슴 떨리는 편지를 쓰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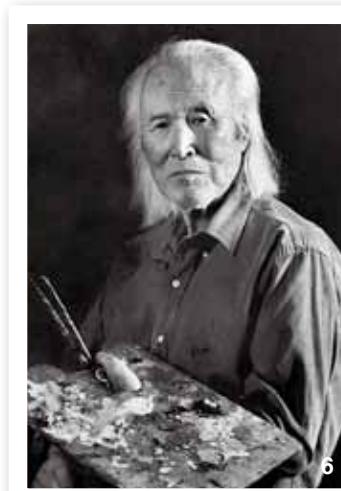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통영은 선선한 기운이 허공을 채울 때쯤 가야 한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르고 시린 바다와 조그만 고깃배 끌렁거리는 고즈넉한 항구가 못 사람들의 가슴에 시 한 구절, 음악 한 소절 주절거리게 한다. 보드랍고 상쾌한 바람, 에메랄드 바다와 사파이어 하늘이 수많은 시인과 미술가와 음악가를 유혹했듯이, 가을날 그곳에 가면 부유하는 예술의 기운이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할 것이다.

예술가를 키워낸 푸른 빛깔과 감성 충만한 분위기는 통영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강구안 항구에서는 수면에 푸른 하늘이 내비치고, 통영 운하에서는 배들이 희푸른 물결을 일으키며 지난다. 새파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화사하게 푸른 미소를 지으며 가리를 지나고, 해안가에서는 여인과 강아지가 질푸른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산책을 즐긴다. 통영의 푸른빛에 매혹돼 몸과 마음에 푸른 물이 흠뻑 들면 '천국을 떠오르게 한다'는 프랑스 코트다쥐르나 뉴칼레도니아의 바다마저도 전혀 부럽지 않을 것 같다.

예술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것도 좋지만 예술이 된 산동네, 동피랑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비탈진 골목 담벼락에서는 통영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초상과 통영을 특징짓는 푸르고 화사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언덕 위 카페에서는 강구안 항구의 평화로운 정경을 감상할 수 있다.

1 물결 잔잔한 강구안 항구에서 따스한 햇살 아래 물고기가 건조되고 있다. 2 아름다운 그림으로 치장된 동피랑 벽화마을. 3 충무교에서 내려다본 통영 운하의 풍경. 4 통영운하의 산책로를 가니 여인과 강아지가 질푸른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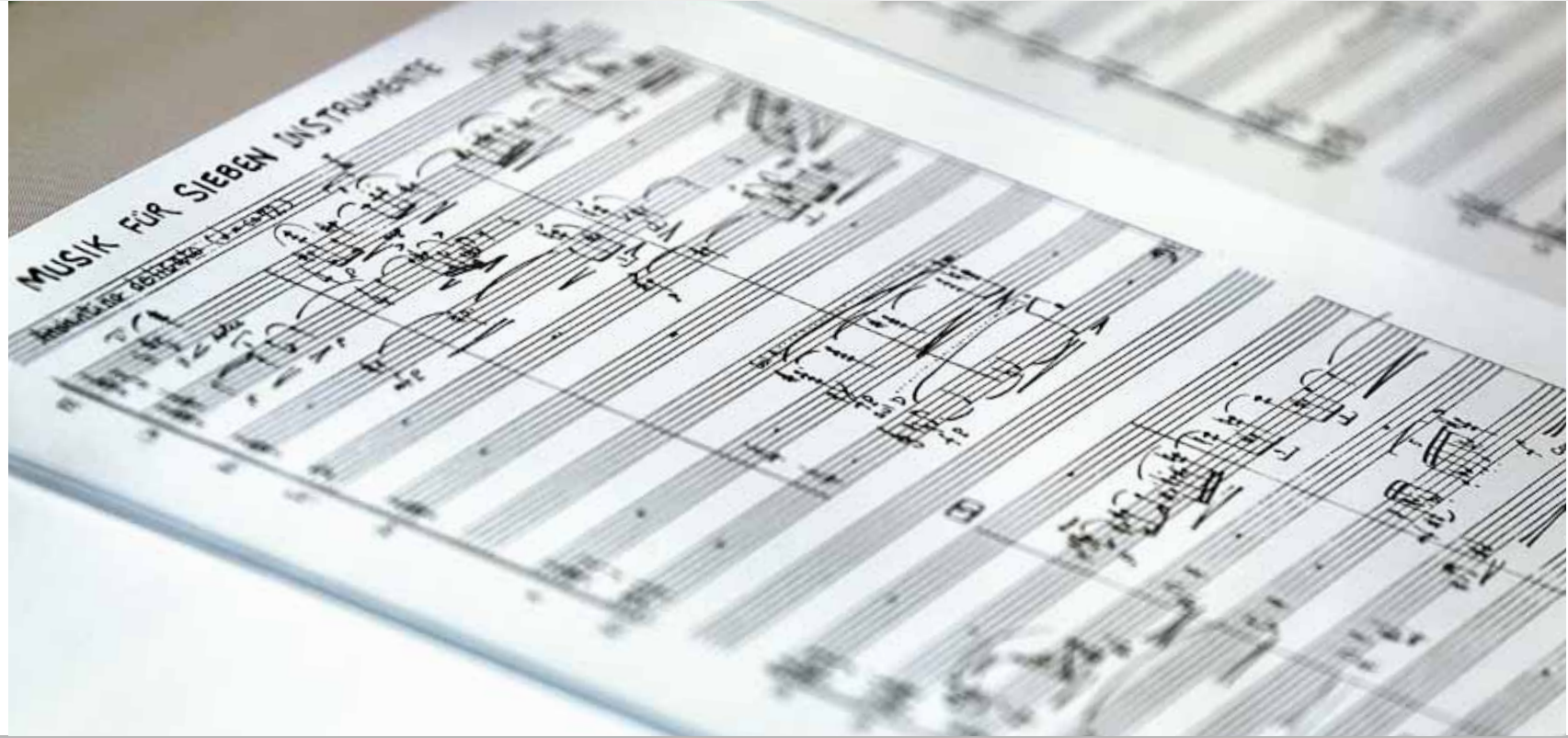


1 건물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인 전혁림 미술관.
2 전혁림 미술관 별관 1층
카페에서는 편하게 쉬면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 아트숍. 4 전시실
계단을 따라서 전혁림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5 생전에
사용하던 화구들. 6 전혁림
화백. 7 푸른색 위주의
추상화가 걸린 전시실 1층.



한 편 작품이 된 미술관

전 화백이 그린 통영은 한없이 푸르고 생명력으로 꿈틀댄다. 그는 통영이 가장 아름다운 푸르른 빛깔을 발산할 때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 냈다. 화백이 30년간 생활하던 곳에 2003년 아들 전영근 화백과 함께 개관한 봉평동의 전혁림 미술관에서는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작품이다. 통영 바다를 상징하는 등대와 사철의 탐을 접목해 지었고, 세라믹 타일 7천500장에 화백의 작품을 담아 외벽을 장식해 화사하고 미려하다. 특히 3층 외벽은 1998년 작품인 '창'(Window)으로 가로 10m, 세로 3m를 장식했다. 미술관 전시실에는 전혁림 화백의 작품 80점과 미술 도구, 생애를 엿보게 하는 사진과 시화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특히 덩지덩지 온갖 물감이 가득한 팔레트와 푸른 물감이 얼룩덜룩하게 묻은 화구에서는 화백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올해는 전 화백 탄생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미술관 일대가 '전혁림 거리'로 선포됐고 입구에는 그의 추상화를 새긴 '화비'가 들어섰다. 또 경기도 용인시 이영미술관에서는 전 화백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기념전이 연말까지 열린다. '기둥 사이로 보이는 한려수도', '통영항' 등 1천호 이상의 대작 3점과 1천50개 목기에 유화로 표현한 대표작 '새만다라'를 볼 수 있다. 전시장 2층에서는 문화예술인과 친분을 쌓고 교류한 전 화백의 인연을 고려해 정현중, 윤후명, 유안진, 신달자 등 문인 30여 명이 참여한 화시전이 마련된다.



음악으로 평화를 기원한 구도자

윤이상은 자신의 음악이 통영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싱그러운 바람이 그의 영감에 자양분이 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영감은 세계인의 음악으로 탄생했다.

“아버지는 종종 밤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배 위에 앉아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나 다른 어부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도창이라 불리는 침울한 노래인데, 수면이 그 울림을 멀리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바다는 공명판 같았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통영의 바다는 이렇게 서정적인 음악적 영감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 봄에 매일 밤 개구리가 우는 소리는 예술적으로 구성된 혼합 합창처럼 들렸다고 한다. 뱃고동과 갈매기 울음, 철썩이는 파도, 바닷가와 언덕을 지나는 바람 등 통영이 빚어낸 모든 것은 그의 음악적 감성을 자극했다. 윤이상은 13세에 바이올린과 기타를 배워 순수 선율을 작곡했고 그 선율들은 무성영화관에서 연주되며 천재 작곡가의 싹을 내보이기도 했다.

윤이상이 세계 음악계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59년 독일에서 ‘일곱 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동아시아의 음악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그의 작품은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그를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했다.

그는 ‘현대를 움직인 5명의 작곡가’, ‘20세기 100년 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 선정됐고 1971년 킬 문화상, 1988년 독일 연방공화국 대 공로훈장, 1992년 함부르크 아카데미 플라케테 상 등 수많은 상을 받으며 세계 음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평생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다

윤이상의 어머니는 태몽으로 용이 지리산을 감싸고 있는 꿈을 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용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했다. 윤이상은 ‘상처 입은 용’이라 불린다. ‘생의 한기운데’로 유명한 루이제 린저와 윤이상의 대담 형식으로 그의 생애와 음악을 돌아본 책의 제목도 ‘상처 입은 용’이다.

그에게 붙은 이 수식어처럼 그의 삶에는 고통과 상처가 많았다. 전통 아악의 기법과 특색을 오케스트라에 접목시킨 ‘예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어가던 1967년, 그는 대학교수, 유학생, 예술인 등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벌였다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서울로 강제 연행됐다. 결국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같은 당대 최고의 음악인이 한국 정부에 탄원해 투옥 2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됐다. 그는 유럽으로 향했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발걸음을 내디뎠다.

비록 고향에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광주여 영원히’,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완성했고, 1990년에는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범민족 통일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윤이상은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내 고향 땅의 온기 속에 말입니다”며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1 도천테마파크의 기념관
2층에는 윤이상의 생애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시물과 친필
악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이 전시돼 있다. 2 윤이상의
여권. 3 공연 자료. 4 1988년
서독 대통령이 서훈한 대공로
훈장.

거장의 생애와 정신 담긴 공간

윤이상의 집터가 있는 도천동에는 그를 기리는 공원과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이곳의 이름은 ‘도천테마파크’다. ‘윤이상국제음악제’가 ‘통영국제음악제’로, ‘윤이상국제음악당’이 ‘통영국제음악당’으로 바뀌었듯이 그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다. 기념관에는 간판도 없다. 분단으로 생전에 받았던 상처가 사후 20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천테마파크는 독특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전체적으로 비대칭의 기념관이 있고 야외 공연장인 경사 광장 벽면에는 사각형 홀을 파고 조명을 설치했다. 또 윤이상이 베를린 자택 인근 호수를 바라보며 향수를 달랬다는 점에 착안해 통영 앞바다를 상징하는 연못을 배치했다. 이 공원은 지난 2010년 전국의 공공시설물 중 발주기관의 노력이 가장 돋보인 건축물에 수여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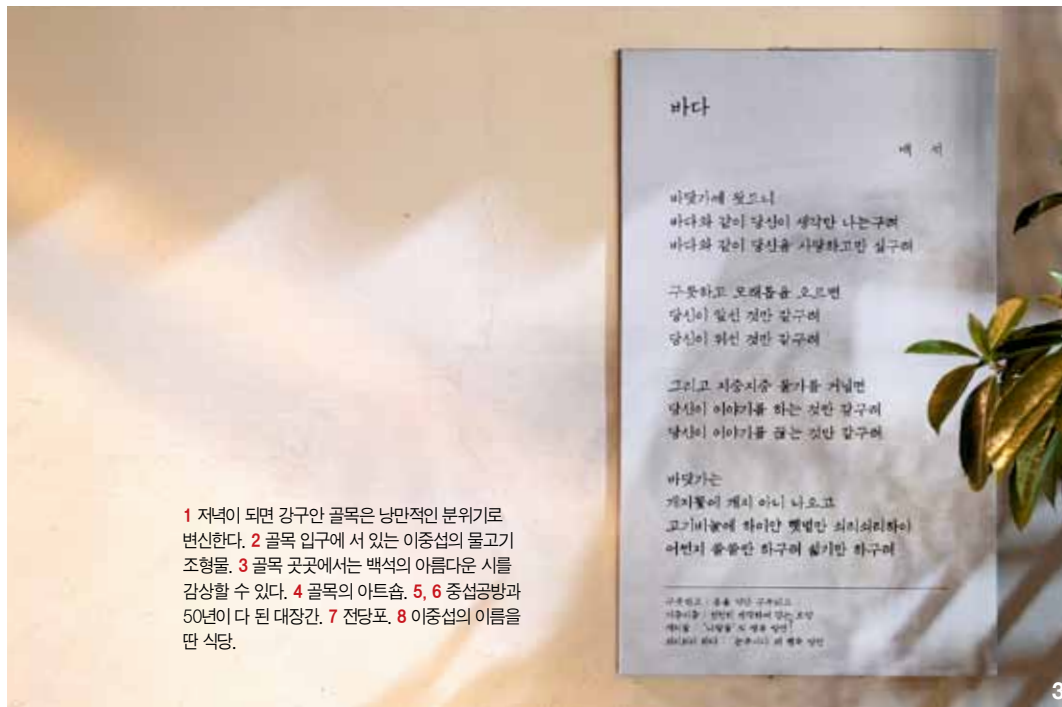
기념관은 생애와 업적 관련 자료와 유물이 있는 전시실, 실내 연주회를 위한 메모리홀, 기념품점과 카페가 있는 에스파체로 구성돼 있다. 전시실에는 독일유학 시절 쓰던 바이올린과 첼로, 친필 악보, 옷과 중절모, 필기도구, 어린 시절 썼던 요강까지 전시돼 있다.

▣ 사랑에 가슴 앓았던 시인의 거리

시인들은 통영에서 가슴으로 울었다. 사모하는 여인 때문이었다. 강구안 골목과 주변, 통영중앙우체국에서는 인연이 닿지 않은 연인을 그리워하던 시인들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낭만적인 강구안 골목길을 거닐며

강구안 항남동 골목길은 백석과 유치환, 이중섭, 전혁림 등 시인과 화가가 술잔을 기울였던 곳이다. 1980년대 후반 여객선터미널이 옮겨가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강구안 골목만들기 프로젝트'로 부활에 나서고 있다. 유서 깊은 골목에는 백석의 시가 걸려 있고,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프랑스 조형예술집단 '아트북컬렉티브'가 만든 윤이상 의 가곡 '달무리' 악보, 이중섭의 그림에서 튀어나온 은빛 물고기 등을 볼 수 있다. 백석의 시를 감상하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래되고 아기자기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중섭의 이름을 내건 식당과 해산물 한식으로 유명한 '풍년식당', 반백년이 다된 대장간과 전당포 등을 볼 수 있다.



강구안 골목 곳곳에는 시인 백석의 시가 벽면에 걸려 있다. 평안도 정주 태생인 그의 시가 통영의 후미진 골목에 내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1935년 6월 당시 24세였던 시인은 친구 허준의 결혼식 축하 모임에서 동료 기자이자 친구인 신현중의 소개로 '난'(박경련)이라 불리던 꽃다운 여고생을 만나 한눈에 반했다. 곧 그는 친구들과 난의 고향인 통영으로 향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뒤돌아서야 했다. 그는 '통영'이란 시에서 "미역오리 같이 말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이라며 당시의 심사를 토로했다. 이듬해 1월 백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간 난을 만나기 위해 신현중을 졸라 다시 한 번 통영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서울로 올라간 뒤였다. 그는 다시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긷는 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통영2' 중)라고 노래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두 달 뒤에도 통영에 갔지만 역시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다. 함흥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번에는 허준을 앞세워 난의 집으로 아예 청혼을 하러 갔다. 하지만 난의 부모는 가난한 시인이자 교사인 백석을 박대하고 혼인을 반대했다.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을 친구 신현중이 귀띔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난은 4월에 신현중과 혼인을 하고 말았다. 백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을 통해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을 한탄했고 "내가 오래 그려오든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든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며 가슴으로 울었다.





INFORMATION



평생을 이어간 순수한 사랑 이야기

통영에서는 청마 유치환과 이영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함께 근무한 통영여중에서였다. 당시 이영도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딸 하나를 둔 29살 과부였고, 유치환은 그녀보다 아홉 살 많은 유부남이었다. 청마는 퇴근 후 수예점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녀를 보기 위해 수예점이 보이는 중앙동우체국 창가에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 이 때 쓴 시 중의 한 편이 바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감성을 울리는 ‘행복’이다.

1967년 부산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 청마가 이영도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5천여 통이나 된다고 한다. 이영도는 청마가 보낸 편지 중 200통을 골라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라는 서간집을 펴내기도 했다.

정량동 언덕에 자리한 청마문학관에서는 유치환의 생애와 사랑 이야기를 엿보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입구에는 1950년을 전후해 유치환, 윤이상, 전혁림, 김상옥, 정윤주, 김춘수

등 통영문화협회를 결성, 통영의 문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함께 한 커다란 사진이 비치돼 있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의 주옥같은 시가 흘러 나와 가슴을 적신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라./ 오늘도 나는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 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한 행복하였네라” (유치환의 ‘행복’ 중) ❶



1, 3. 청마문학관에는 유치환의 시와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2. 문학관 입구에는 유치환이 이영도에게 편지를 보냈듯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부칠 수 있는 우체통이 놓여 있다. 4. ‘꽃’의 시인 김춘수의 유품을 모아 놓은 전시관.

둘러볼 곳

통영은 예술가의 ‘자궁’이다. 시인과 소설가, 화가와 음악가가 나고 자랐고, 예술의 꽃을 피웠다. 또 통영은 맛의 고장이자 휴식과 즐거움을 간직한 명품 여행지다.



박경리 기념관

통영은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고향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향에 머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결혼 후에는 황해도에서 생활했으며 한국전쟁 중 남편을 잃고 돌아왔지만 가슴에 상처만

입고 떠난 후에는 수십 년간 별로 찾지 않았다. 결국 그는 타개한 이후 고향에 돌아왔다. 산양읍에 있는 박경리 기념관에는 ‘토지’ 친필 원고와 유품이 전시돼 있다. 또 영상실에서 생전 모습을 볼 수 있고, 책과 작품 관련 논문도 있다. 기념관 뒤편 언덕에는 사비와 묘가 있는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 한편 강구안 북서쪽 서문고개는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주요 배경이 된 곳으로 작가는 한때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pkn.tongyeong.go.kr, 055-650-2541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미륵산(해발 461m)에 설치된 케이블카로 8인승 곤돌라 48대가 쉬지 않고 탑승객을 실어 나른다. 선로 거리가 관광용 케이블카로는 국내 최장인 1천975m로 상부역사까지 10분이 걸린다. 곤돌라 정박으로는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비경이 펼쳐진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한산대첩 전망대, 박경리 묘소 전망 쉼터, 한려수도 전망대 등이 있으며 정상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리산, 여수 돌산도, 쓰시마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까지는 왕복 30~40분이 걸린다.

운영 시간 09:30~17:00(3·9월 오후 6시까지, 4~8월 오후 7시까지) 요금(왕복/편도) 성인 1만원/6천500원, 소인 6천원/4천원 문의 cablecar.ttdc.kr, 055-649-3804



중앙전통시장

강구안의 동피랑 아래에 있는 시장으로 싱싱한 활어와 건어물을 취급하고 있다. 도미, 우럭, 광어, 방어 등 싱싱한 생선이 즐비한 이곳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솜씨 좋게 회를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각종 해산물과 건어물을 싸게 살 수 있다. 족석에서 회를 떠서 먹을 수 있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길가에는 통영의 명물인 꿀빵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